

# 내가 바라는 국토, 내가 가 본 갯벌세상



이 혜 원 • 울산 옥동초등학교 1학년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제가 너무 아기라서  
엄마, 아빠께서 멀리 여행을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파트의 길이나 아  
파트 놀이터, 울산대공원처럼 예쁘게 되어 있는 길만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엄청난 일  
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엄마께서 작년에 언니와 저를 데리고 남해 갯벌에 간 것이었습니다.

남해의 자동차도로는 구불구불해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나무가 도로까지 튀어나  
와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동차로 계속 달리고 달려서 남해 문항마을 갯벌에 도착하  
였는데 물때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장화로 갈아 신고 물이 멀리 빠질 때까지 기다  
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언니랑 조금 놀다가 쳐다보면 물이 멀리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갑  
자기 바다가 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을 처음 봐서 신기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 할머니들께서 바구니랑 막대기를 주시면서 들어가자고 하셔서 팔딱팔딱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특이했습니다. 딱딱한 땅이 아니라 시커멓고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진흙 안에 발이 빠져서 못 나올까봐 걱정도 되었는데 할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멍들이 뽕뽕 많이 뚫린 곳에 모여 앉아서 구멍 속에 얇은 막대기를 넣어서 ‘썩’이라는 것이 나오면 잡아서 바구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재같이 생긴 썩이 물까봐 무서워서 잡지는 못했지만 갯벌 진흙을 파고 만지면서 놀았습니다. 흙 안에는 조개도 있다고 낮같이 생긴 걸로 긁어내라고 하셨는데, 길쭉하게 생긴 처음 보는 조개였습니다. 흙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놀이도 했습니다. 얼굴이랑 옷, 신발이 전부 시커멓게 되었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물이 들어온다면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슬펐습니다.

갯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랑 책을 찾아보고 이야기도 했는데 갯벌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 진짜 보물 같은 생명도 많이 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아름답게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있었던 서해안 태안반도라는 곳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름을 싣고 가던 배가 다른 배랑 부딪혀서 기름이 흘러나와 바다가 엉망이 되었고, 서해안 갯벌에 있던 물고기랑 게랑 새들도 기름에 뒤덮여서 새까맣게 변하고 많이 죽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기름에 덮인 논병아리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논병아리 엄마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우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돌까지 하나하나 닦았고 모두 노력해서 지금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다와 땅과 동물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땅속에서 살쭉살쭉 살아가는 물고기나 조개나 게나 새도 우리와 같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갯벌에 가서 게, 썩, 조개를 잡더라도 꼭 다시 놓아주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갯벌은 생명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